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SPEEDY 문법 정리 3장: 단어(2) (형성, 의미, 표기)

○▽○들어가기 전 점검●▼●

1. 조사는 단어인가

2. 미지칭/ 재귀칭/ 부정칭

3. 직접 구성 요소

4.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5. 눈(目)과 눈(雪) / 걸음과 거름 중 동의어 관계에 있는 것은?

▶ 사실 둘 다임.

6. 로마자 표기에서, 거센소리되기는 모든 단어에서 'ㅎ'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 답은 X

★ 표시는 수특 내 옆구리(주석) 설명
OX퀴즈는 저자 기준 2021 수특 헷갈리는 선지
형광펜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곳에 표시

●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ex(~~버터링쟝은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는 게 은근 햇갈려서 예시 넣음~~):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 나, 는, 잘, 익-, -은, 과일, 을, 아이, 에게, 먹-, 이, -었-, -다

●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의존 형태소	어간, 어미, 조사, 접사 등
의미의 성격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 ***쉽게 생각하자면 문장을 띄어쓰기 단위로 끊은 다음에 조사 분류하면 됨***

☆조사를 단어로 처리한 이유: 조사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가져 어미에 비해 쉽게 앞말과 분리될 수 있음.

1) 단어의 구조: '어근'과 '접사'

단일어		하나의 어근
복합어	합성어	어근+어근
	파생어	접사+어근

★직접 구성 요소:
어떤 말을 둘로 쪼개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 직접 성분이라고도 함.

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 **합성어의 형성(사바사일 수 있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만 알아두는 게 편했음)**

1)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음.

2)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 구성 방식과 같지 않음.

→ 용언 어간+명사: 접칼

→ 용언 어간+용언 어간: 검붉다

→ 비자립적 어근+ 명사: 보슬비

▶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연결,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명사 수식

● **파생어의 형성**

1) 접두 파생어: 접두사+어근

2) 접미 파생어: 어근+접미사

☆접사의 기능: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일이 극히 드물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①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남달랐다.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관련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찾기 드문 복수 정답 처리된 문제임.

원래 정답 외에 3번이 정답 처리. ('늦잠'이 파생어이기 때문에)

원래 정답은 1번이다.
(그냥 1번만 정답으로 찍은 버터링쟝이 꼼꼼함을 반성하면서 넣음. 물론 수능장에선 1번 넣는 게 당연함.)

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 **단어의 의미 관계**

① 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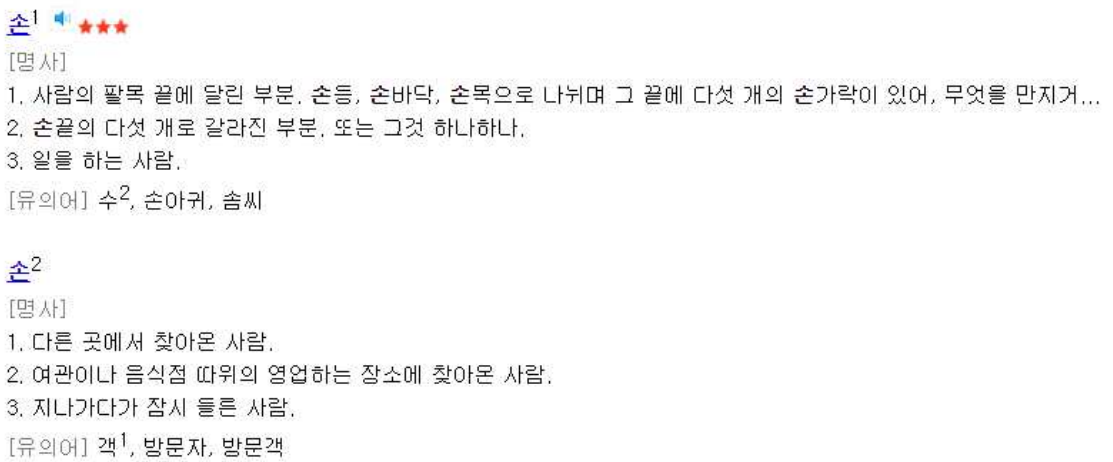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다의어와 동음어 (의미적 연관성으로 구분!!!)

▶ 다의어: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가짐. (하나의 단어)

▶ 동음어: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단어. 동음어는 표기가 같은 경우와 표기가 다른 경우(ex: 걸음&거름)로 나뉨



손[1] ★★★

[명사]

1.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등, 손바닥, 손목으로 나뉘며 그 끝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어, 무엇을 만지거...
2.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
3. 일을 하는 사람.

[유의어] 수[2], 손아귀, 솜씨

손[2]

[명사]

1.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2.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3.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

[유의어] 객[1], 방문자, 방문객

손[1]과 손[2]는 동음어 관계, 각각 단어 아래 1, 2, 3은 하나의 단어이나 의미가 달라지는 다의어 관계

● **단어의 의미 변화**

① 의미 확대 ex) 손 (신체의 일부분 +노동력 의미 추가)

② 의미 축소 ex) ᄉᆞ랑ᄒᆞ다 (과거에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임.)

③ 의미 이동 ex) 어엿브다 (불쌍하다〉〉예쁘다)

● **단어의 표기**

(1) 외래어 표기 (수능에 자주 출제되지 않음. 추측하건대 예외가 많아서 그런 듯.)

기본 원칙

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① 현용 24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자음은 격음(쌍자음) 사용 NO. (그러나 예외 존재) /

▶ 모음은 ㅏ,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쉬림프 아니고 슈림프ㅋ)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 e	wo	we	ui

3.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k	kk	k	d,t	tt	t	b,p	pp	p

4.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5.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웬만해서 표는 당연히 줌.

6. 비음

ㄴ	ㅁ	ㅇ
n	m	ng

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 자음 동화, 'ㄴ'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 /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소리임.

▶ 경음화(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팔당[팔땅]: Paldang)

★체언에서 일어나는 격음화의 표기: 'ㅎ'을 밝혀 적음. (체언 한정임!!\
(묵호[무코]:Mukho

●○●○●○점검! 듄 수특 선별!!●○●○●○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특 284페이지 12번인데 보기 지문 날렸음.)

〈보기〉: 유사한 의미로 명사나 동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한 접두사

① 겉-: 겉-치레, 겉-늙다
② 엇-: 엇-각, 엇-나가다
③ 맞-: 맞-대결, 맞-물다
④ 들-: 들-개, 들-끓다
⑤ 헛-: 헛-고생, 헛-살다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버터링-w-이 버터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20. 10. 07

●○●○●○관련 기출 함 풀어볼까?●○●○●○

오늘은 한 문제만 선별합니다! 어차피 기출 회독하니까 ㅋㅋ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16년 수능 14

<보 기>

건설 + -되다[1] → 건설되다	못 + -되다[2] → 못되다
발견 + -되다[1] → 발견되다	참 + -되다[2] → 참되다
평가 + -되다[1] → 평가되다	막 + -되다[2] → 막되다
처리 + -되다[1] → 처리되다	영광 + -되다[2] → 영광되다
( )	( )
· 다리가 건설되었다.	· 못된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발견되었다.	· 영광된 자리에 서다.

① '-되다[1]'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② '-되다[2]'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③ '-되다[1]'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2]'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④ '-되다[1]'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2]'는 그렇지 않구나.
⑤ '-되다[1]'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2]'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듄 수특 정답: 4

들개의 들은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갖고, 들끓다의 들은 '몹시'의 뜻을 가짐.

기출 정답: 5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